

## 미주한인이민 120주년, 한인들의 도전과 꿈 알린다

### 미주한인재단LA

### 내년 1월 제20회 미주한인의 날 대규모 행사로 기획

“내년 2023년 1월은 102명의 한인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지 1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을 차세대 한인들과 미 주류사회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가 내년 1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 히스패닉, 타이완, 아르메니안, 루마니아 등 다민족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한인들과 탈북민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을 기억하고, 더 큰 발전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2일(목) 오후 3시, 6.25전쟁 당시 흥남 철수 피난선이었던 롱비치 빅토리아 선박에서 개최되는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는 기념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책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사람들(가제)』 발간 기념식 및 축제를 통해 한인들의 역경과 도전을 회고한다.



지난 20일 LA 옹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회가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명 총장, 김일권 회장, 이병만 회장, 김향로 장로, 뒷줄 왼쪽부터 임경애 부회장, 정정숙 부회장, 김영구 목사 ©기독일보

1월 13일(금)에는 해외동포 단체장과 미주 전직 및 현직 단체장 및 국내인사들과 함께 LA 시청과 캘리포니아 주청사, LA카운티 홀에서 제20회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및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 저녁에는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드모어 호텔(506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71)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1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 작가전도 마련된다.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 한미 공동대회 장으로는 한국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총리), 미국에서는 김영길 AKUS 총회장(America Korea United Society)이 위촉됐으며, 기념 감사예배 대회는 한규성 AKUS 회장, 양성전 목사(한국 국회조찬 지도위원),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맡았다.

이번 행사의 기획 총괄을 맡은 김일권 박사(한미이동맹협회 회장)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정리하면서 ‘세계 속의 한민족, 세계를 이끄는 한민족’임을 선포하고, 한민족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며 “특별히 다민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다민족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재단LA 이병만 회장은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을 차세대 한인들과 미국의 정계 및 다민족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미 주류사회 전반에서 미주 한인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들은 우리의 이민역사와 정신을 기리고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간 우호증진에 힘써야 한다”며 “미주 한인들이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 주류 사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 미국 남침례신학교 “남성만 목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새들백교회는 지난 5월 6일 처음으로 리즈 퍼퍼, 신시아 페티, 케이티 에드워즈(왼쪽부터 순서대로)를 여성 목사로 안수했다. ©새들백교회

### 앨버트 몰러 SBTS 총장 교단 입장 재확인...새들백교회 제명되나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교단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3명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 새들백교회(담임 앤디 우드 목사)의 제명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주 SBTS 가을 이사회는 학교 행정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학 훈련을 계속할 것을 권장하지만 “남성만이 그 직분과 기능, 그에 따른 목사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남침례회(SBC)의 공식 신앙 선언문인 ‘침례교 신앙 & 메시지

2000(Baptist Faith & Message 2000)’ 작성자 중 한 명인 앨버트 몰러 SBTS 총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몰러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사회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그들이 한 일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게시했다. 몰러는 “우리 SBTS 이사회는 지난주 중요한 성명을 내고, 침례교 신앙 & 메시지 2000에서 남침례교인들이 고백하는 성경에 따라, 목사를 기능과 직분으로 정의하고 남성으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새들백교회는 릭 워렌 담임목

사의 퇴임을 1년 앞둔 시점에 리즈 퍼퍼, 신시아 페티, 케이티 에드워즈 등 여성 3명을 목사로 안수했다. 결국 그해 6월 열린 SBC 연차 총회에서 새들백교회의 제명을 청원하는 안건이 이어졌지만, SBC 자격심사위원회는 새들백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위원회는 총회가 목사직에 대한 명확한 권고문을 보고할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몰러 총장은 “우리 신앙고백의 모든 말들에 대해 연구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며 더 이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위원회 구성에 반대했다. 그의 총회 발언은 총대원들의 박수를 끌어냈고, 결국 연구위원회 구성은 무결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BTS)가 ‘남성만이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업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HAPPY Halloween**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9%이자가 가능  
**2.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NEW 2022 HYUNDAI IONIQ5 SE  
 NEW 2022 HYUNDAI TUCSON SE  
 NEW 2022 HYUNDAI SANTA FE SE  
 NEW 2022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멕시코 3세 목회자, 18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 한인 목회자에게 새벽기도 소개 받아 아들 살해한 충격범 용서하기도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에 뉴비기닝커뮤니티교회에서 진행된 "Pray California"에서 디아즈 목사 부부와 함께한 강태광 목사(맨 왼쪽)와 강순영 목사(맨 오른쪽).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해 기도한 이날 기도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미국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뉴비기닝커뮤니티교회(New Beginning Community Ministry)를 담임하는 데이빗 디아즈(David Diaz)목사는 한인처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목회자로 유명하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벽기도에 대한 간증을 한다. 18년 전 어느 한인 목사에게 새벽기도를 소개받은 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기도회를 한다. 현재 600여명이 참석하는 그의 교회는 매일 수십 명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토요일 새벽은 백 명 이상 모여 기도한다.

데이빗 디아즈 목사는 2013년 11월 11일에 아들 다니엘 디아즈를 잃었다. 청소년 담 당 사역자였던 다니엘 디아즈는 9개월 과정의 청소년제자훈련을 마치고 기념으로 영화 구경을 마치고 나오다 총에 맞아 숨졌다. 디아즈 목사는 아들 다니엘의 죽음에 망

연자실했다. 소방학교를 마치고도 아버지 뜻에 순종해 소방관을 포기하고 목회자 수업을 받던 착한 아들이었다. 너무 힘들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3개월간 설

교를 중지했다. 히스패닉 목사의 아들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주요 방송채널의 뉴스로 전해지자 무서운 연락들이 왔다. "데이빗 말만해

라! 우리가 원수를 갚아 주마! 아무 부작용 없이 그 놈들을 없애 주마!" 메시지를 수 차례 받았다.

그러다 데이빗 디아즈 목사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 대한 용서를 선포했다. 디아즈 목사는 살인범 가정에 용서를 전했다.

처참한 아들의 죽음은 잔인한 고통이었다. 죽음보다 더 지독한 그 고통을 기도로 이겨냈다. 고통의 크기만큼 부르짖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큼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졌다. 아내 다이애나 디아즈(Diana Diaz)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잠시 품었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치유 받았다.

데이빗 디아즈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것을 아쉬워한다. 그는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한인교회의 기도가 더 강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동부 LA 10개 도시를 돌며 기도한다. 감사하게도 기도한 후에 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김동욱 기자

## (주)루미가넷 대표 전성실 회장, 복음대학교에 시가 3백만 달러 건물 기부



루미가넷 대표 전성실 회장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라는 주제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LA 로렐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에서 개최된 제38회 재미교 신총회에서 주시회자 루미가넷 대표 전성실 회장이 시가 3백만 달러 상당의 건물을 복음대학교(총장 김성수 박사)에 기부했다.



전성실 회장이 복음대학교에 기부한 시카고 소재 건물

이번에 전성실 회장이 기부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1만8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건물로 시카고 한인사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음대학교 시카고 분교 및 강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품질과 고감도 색상으로 전세계 네일샵에서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등지에 200여 개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음대학교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현재 남가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복음대학교 건물(3만 스퀘어피트 규모)을 타주로 이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왔으나, 이번에 전성실 회장이 시카고 소재 건물을 기부함에 따라 복음대학교 분교는 남가주에 그대로 두고, 시카고 분교에서 실제적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복음대학교는 현재 애너하임 건물의 임대 수입으로 재정난을 충분히 타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전 회장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에는 루미가넷 옥토택산을 설립했으며, 그동안 장학사업, 선교지 사업, 사회 환원 활동을 비롯해 고신대학교에도 기부를 이어왔다.

서울 서문교회 집사인 전성실 회장(58)은 고 전은성 목사의 5남 1녀 중 다섯째 아들로 40년 전 이민 와, 일리노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주시회사 루미가넷을 설립했다. 국내 네일용품 및 네일아트 시장 점유율 1위인 루미가넷은 뛰어난

전 회장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에는 루미가넷 옥토택산을 설립했으며, 그동안 장학사업, 선교지 사업, 사회 환원 활동을 비롯해 고신대학교에도 기부를 이어왔다. 전성실 회장의 형인 전성철 목사(시카고 여수문교회 담임, 복음대학교 부이사장)는 "선진계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열심히 벌어서 복음 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가치'라고 가르치셨었다"며 "전성실 회장의 이번 기부가 복음대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인규 기자

##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The 특별한 금요일예배"에 초대합니다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담임 남상권 목사 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The 특별한 금요일예배'를 드린다. 오는 11월 18일(금)에는 최훈 목사(주님의교회), 12월 16일에는 권도근 목사(나눔목 비전교회)가 강사로 나선다.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있는 중에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선교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남상권 목사는 "이번 집회 기간에는 성경의 깊이가 탁월하며 인품이 아름다우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게 된다"며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 예배를 통해 한국과 타국, 타주에 계신 목회자들과 선교사,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새벽예배(현장)와 수요 성경공부(현장), 금요일예배(현장, 온라인), 주일 예배(현장, 온라인)를 드리고 있다. 예배 참여방법은 현장예배와 유튜브에서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남 목사는 이어 "연락을 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던 가운데 예배에 참여함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

한편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선원 100명과 현지 선교사님 7명, 은퇴 선교사 20명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다. 사랑 나눔은 현금, 헌신(선물포장), 헌물(옷, 양말, 모자, 과자, 불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213)800-3651(남상권 목사)

### [1면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이어]

한편 한인 이민 120주년에 맞춰 발간 될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사람들』은 120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빛낸 김마리아, 안장호, 강영우, 임동선 등 16명을 소개하는 책이다.

기념도서 출간을 담당할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타계한 인물 가운데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을 넘어 미국과 세계에 공헌한 한인 16인을 선별,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고 한인인민사를 회고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한민족의 위상을 더 높여 준 16인의 생애를 돌아보며 한인 사회의 미래를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후세대에 전하고자 한다"고 출간 목적을 밝혔다.

책은 350페이지 분량으로 한인 정치인과 공무원, 과학자, 계몽가, 종교인, 하와이 이민 여성 등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의 업적을 담았다. 이 책은 추후 영어로도 번역돼 미 주류사회와 한인차세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이상명 총장은 이어 "한인 사회를 비롯해 미국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뜻 깊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유대한민국 비상시국을 위한 미전국기독교인 철야집회

## National Leadership Emergency Prayer Meet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Invited Guest Speakers

 임용근 의원 5선 상하원 의원	 조용우 의원 15대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성주 장관 예비역 공군소장	 정대석 장로 재정관리전문가	 전진웅 목사 휴스턴제일한인(미국)교회	 조현영 목사 아펜젤러대학부총장	 박성녀 목사 신학박사	 김현국 목사 펜실베이니아 KPCA 총회장역임	 원관혁 장로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이우호 목사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대표
--	--	---	--	--	---	---	--	--	--

**모국 자유대한민국이 매우 위태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짓과 선전 선동으로 국가를 전복한 주사파들의 소고기파동 촛불시위와 최순실 컴퓨터 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이어, 현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거짓 선전, 시위사건들이 또 연속 터지고 있는 상황을 미주 동포들은 매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오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일 죄악과 더불어 안락한 삶을 누리며 시대의 흐름에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적대하고 있음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유대한민국이 건국기념에 따라 더욱 새롭게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성령애국 구국철야집회에 초청합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12~13 토요일 오후 5시 식사 후 6:00 시작 - 주일 오전 8:30분 예배 후 9:30분 폐회
- 장 소 : 대통령 이승만기념관 및 한국참전용사기념관
- 주 소 :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 연락처 : 이우호 목사 (754)366-9923, 원관혁 장로 (817)773-2348
- 알 림 : 철야집회 참석자는 반드시 슬리핑백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예약필수

**특 강**

**'목사의 정치참여'**

이우호 목사

공동주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한미애국기독교연합회**

# 밀알선교단 2023년도 밀알 장애인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2023년도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밀알장학생과 근로복지생은 1인당 3천 600달러(매달 3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꿈나무장학생은 1인당 1천 달러가 일시 지급 된다.

밀알장학생은 대학 또는 대학원 풀타임 재학중인 장애인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남가주밀알선교단 양식)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앙 간증문(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최근 세금환급 또는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고용주의 편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추천서 2매(출석교회 담임 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를 제출하면 된다.

꿈나무장학생은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남가주밀알선교단 양식)와 재학증명서, 수입증명서(



2022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기독일보

최근 세금환급 또는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고용주의 편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생은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

서 봉사하는 장애인으로 신청서(남가주밀알선교단 양식)와 본인의 신앙 간증문(최소 500단어), 수입증명서(최근 세금환급 또는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고용주의 편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 지

도교수)를 제출하면 된다.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며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은 11월 30일(수)까지며 Email 접수도 가능하다. 발표는 12월 30일(금) 개별 통보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내년 1월 16일(월)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는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남가주밀알 사무실)로 하면 된다. 주소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전화 562-229-0001, 이메일 admin@milalsca.org 웹사이트 www.milalsca.org

한편 올해에는 84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총 10만4천200달러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됐으며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274만8천200달러다.

김동욱 기자

##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성황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기독일보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개최하는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24일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Los Coyote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50여명의 선수와 180여명의 밴킷 참가자가 참석해 해외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 연합회는 대회에서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50여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금 전달식은 12월 중에 가질 예정이다.

신용 회장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됐다”며 “전폭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은 센터메디컬그룹, 부대회장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유종배 사장님과 황선철 회장님, 차세대 인재양성에 앞장서 온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종열 장로님, 많은 물품으로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준 CJ Foods USA를 비롯해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3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준비위원들과 임원, 이사님들의 기도와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린다”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연합회의 장학금 소식이 점점 알려져 감사하고, 오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적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녁 만찬 밴킷에서 설교한 안신기 목사(CBMC 지도목사)는 “선교사를 돕는 거룩한 일에 동참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OC교협 심상은 목사는 개회식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강조했다. 심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휴일원을 해서 2만불의 상금을 받아, 모두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으로 후원하시길 바란다”며 덕담도 건넸다.

저녁 만찬에는 11월 선거에 출마한 영길, 미셸스탈 박, 유수연, 박영선 등 후보나 보좌관들이 참석해 축하와 이번 선거의 중요성 및 한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준비하며 그동안 1, 2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민김 총괄준비위원장과 대회장, 부대회장께 감사패를, 연합회 이사 전홍 장로께 특별상을 수여했다.

한편 연합회는 그동안 2019년 1회 때 15명, 2021년 2회 때 52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주세요!”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우크라이나 겨울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월드쉐어USA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종목사 제도를 도입한 키치키 목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종목사 활동을 지원하고, 전사자 가족 지원(전쟁 과부 돕기)과 전쟁 고아 돕기를 지속해 왔다.

추운 겨울 날씨로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드쉐어USA는 ‘우크라이나 겨울나기 돕기 캠페인’을 통해 현지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태광 대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특히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간산업 시설들이 파괴됨으로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물과 전기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목사는 이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은 무너졌고 겨울나기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미주 한인교회가 전쟁의 아픔과 추위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월드쉐어USA는 유럽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내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와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578-7933, 카카오톡 ID : Chapkang 1, 이메일 chap1207@hotmail.com으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동성애자 축복식’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확정

지난 2019년 8월 인천 쿠퍼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판결이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0일 오후



이동환 목사.

서울 광화문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경기연회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위원회는 이날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기각 이

유를 설명했다.

재판위원 6인 중 4인은 항소 기각, 2인은 항소 인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목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감리회는 축복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감리회는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낱낱이 보여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대웅 기자

#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주제: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자

### 집회 일정

- 11월 6일 주일 오전 11시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818-633-1241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남가주 은혜선교교회 김창곤 목사 310-713-3006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9시 남가주 새생명교회 박형준 목사 714-323-1194  
261 E Imperial Hwy #550 Fullerton, CA 92835
- 11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놀웁장로교회 차권희 목사 213-598-6878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비블리학회연구원 원장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기독일보 문의전화 : (213)739-0403, (213)718-1512

# “엔데믹 시대, 교회 향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도전 더욱 심화될 것”

##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50주년 의미 커”

각종 미디어에서 엔데믹 시대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주 기독교일보는 주요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만나 엔데믹 시대 목회 전망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 순서로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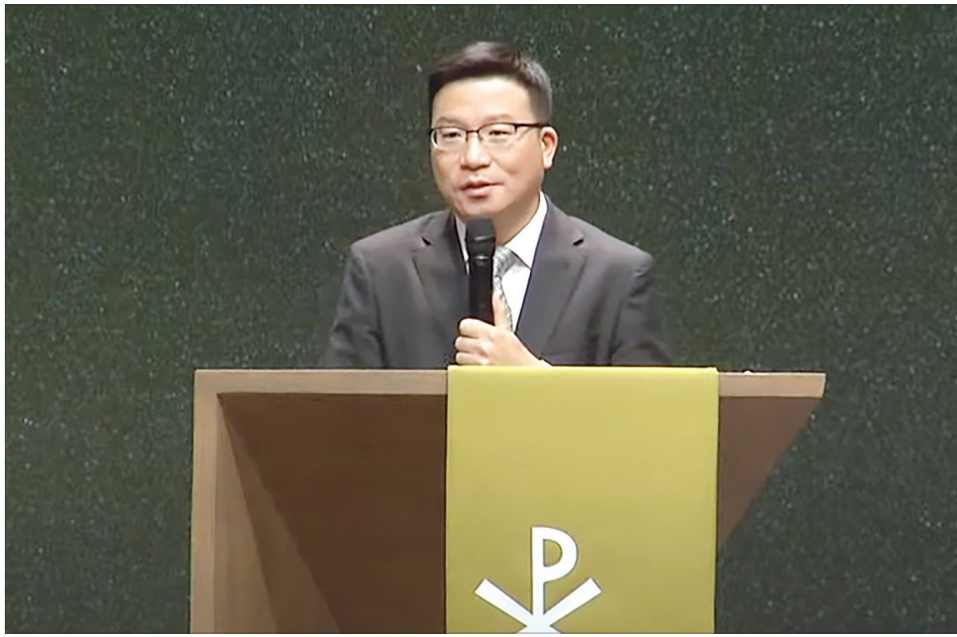
박은성 목사는 지난해 6월 리오프를 맞아 기독교일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당시 교회들은 팬데믹 자체가 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온라인예배 등에 성도들이 익숙해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편의성’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내다본 바 있다. 현재 교회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이 대면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약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은 세계 교회들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민교회들도 큰 변화들을 맞았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미주 한인교회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은성 목사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교회들은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팬데믹 이후 더욱 이런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평가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엔데믹에 대한 키워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 교회들은 팬데믹 시대와 또 다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영락교회의 경우 엔데믹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지난 6년 간 나성영락교회에서의 사역 중 2년이 넘는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중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이어서 ‘엔데믹 시대에도 교회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내년 2023년에 창립 50주년 ‘희년’(Jubilee)을 맞는 우리 교회는 그 간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와 단절된 이들을 연결하여 신앙 공동체로 다시 이끄는 사역이 중차대하다 여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에 단순히 급속 성장한 대형 교회를 이상적 모델로 여기며 모방하려 했던 소위 과거 ‘부흥 시대’에 대한 향수로부터 벗어나 몸집과 가시적 수치가 줄어도 교인과 이웃, 지역과 사회, 세상을 향해 더욱 긴 강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섬김 사역에 집중하는 형태의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나아가 교단과 교리의 차이를 떠나 실제적 살림 사역을 중심으로 교



나성영락교회 담임 박은성 목사 ©기독교일보

회들 간 서로 연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고 있다.

덧붙여 엔데믹 시대를 맞으며 나성영락교회를 비롯한 적잖은 교회들의 질문 중 한가지는 그동안 예배와 교육, 훈련을 위해 갖춘 온라인 사역을 앞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 온라인 예배와 교육 등의 사역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특수 상황에 놓인 교인들을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전에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여겨지기에 계속 감당하려 한다. 하지만 비대면의 온라인 사역들은 앞으로 교회 안으로 처음 들어오려는 분들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차선의 방식일 뿐 교회를 위한 온전한 대안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함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하려 한다.

**-나성영락교회라는 전통적인 이민교회를 담임하면서 가졌던 목회 철학을 소개한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해가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째, 목회자는 생활에 있어 사람의 종이거나 특정인을 위해 고용된 일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부르심)과 사명(보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활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는 오직 예수께서 머리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온 지체를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되게 한다. 셋째, 목회자는 자기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를 고대하며 가며 살아간다. 이런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로 목회를 해 오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의미있는 변화와 발전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소개한다면.**

내년 창립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지난 2018년부터 ‘VISION, 비전 2023’을 세워 점차 이루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교회 내에 일어났던 발전과 변화, 사역을 예배, 전교, 봉사, 교육, 선교 등 교회의 5 가지 핵심 방향에 따라 간략히 요약하자면 먼저 예배는 심미적 문화적 변화로 강단을 새롭게 바꿨다. 미디어 인력 및 장비(대형 LED 화면, 음향, 조명 등)를 새로 구축했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있는 세대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친교를 위해서는 교인과 주민에게 열려 있어 휴식과 교제를 제공하는 교회 내 카페를 열었고 교회와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 봉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LA 한인, 한인 교회와 본교 출신 교역자 교회에 재정을 지원했다. 또 지역 사회에 코로나 대비 위생용품 계속 전달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온라인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강화했는데 특히 나성영락 교육지원센터(YES)를 열어 전체 교육 부서를 지원한 것이 큰 변화다. 선교는 팬데믹 중에도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백신 접종을 위해 잠시 미국에 방문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관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2세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빠뜨릴 수 없다. 한인 2세대 양육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우리 한인 1.5 세, 2 세, 3 세대는 이전 이민 1 세대와는 극명하게 다른 환경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과 신앙적 가치관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친 외적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현재 학교 교육의 철학과 방향은 지극히 비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급격히 세속적이고 최악된 방향으로 끌려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나성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교육 시설, 학교 등을 건립하여 단순히 교회 안 교육을 넘어서 학교와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다음 세대를 위해 이어가려는 강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이민교회의 모습이 2세대들이 더욱 성장한 미래에도 남아있을지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이민 교회 전체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한인 이민 인구의 급감과 다른 여러 이유들로, 한인 교회 내에 한국어권 회중(KM)의 교회 내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어권 회중(EM) 교인들 역시 교회 내 멤버를 점차 늘리고 있기 보다 성장이 정체 담보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나성영락교회 내 영어 목회부(EM)의 구성원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나성영락’의 정체성을 좋아하며 그 안에 머물길 원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 졌기에 주변에 상황 속에서도 마치 그루터기 같이 터를 지켜왔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름과 자리만을 남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한 믿음의 유산과 더불어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전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나성영락’의 정체성을 간직한 어린 자녀들 젊은 가정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세심히 살피고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에 사역에 동역하게 하려한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역동적 동참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벽이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교회의 본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대원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포항 주차장 침수 생존자 “왜 아들 데려가셨느냐 기도했더니...”

### 오천제일교회서 급박했던 당시 상황과 체험 간증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침수 사고로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김은숙 집사(52)가 지난 주일 오천제일교회에서 간증을 전했다.

김 집사는 태풍 ‘힌남노’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고립됐고, 오후 9시 45분쯤 구조되며 약 15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환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김 집사는 “할렐루야, 감사드린다. 저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다”면서 간증을 시작했다.

김 집사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사랑하는 늦둥이 내 아들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집사는 “제가 닥친 엄청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다.

울먹이며 간증을 이어간 김 집사는 “정말 뉴스에 나오는 그 일들이 나에게 다칠 줄 몰랐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슬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이 아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내 아들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얼굴 보고 싶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정말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고 싶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제가 알기에, 제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집사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비전스쿨에서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큐티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많은 영혼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암송도 잘 하는 아이로 성장했다”며 “갑자기 중학생이 되면서 훌쩍 큰 아들은 저에게 든든했다. 무거운 짐도 다 들어 주고 시장도 같이 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일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김 집사는 “방송을 듣고 나가는데, 아이가 뒤따라 나왔다. ‘엄마 내가 지켜 줄게. 내가 보호자 해 줄게’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말할 수 없었다. 나와서 가다가 제가 바람에 밀려서 넘어졌다. 아직도 무릎에 상처가 있다. 아들은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하 뒤편에 차를 세워뒀기에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물이 없었다. 차를 빼입구까지 오는데, 1~2분밖에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미 물이 차서 차 문이 안 열리고, 또 역주행하는 차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차를 버리고 나가자고 했다. 아들은 나갔는데, 저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들이 조수석 문을 힘껏 당겨서 저

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줬다”고 했다.

김 집사는 “입구로 나가고자 할 때 물이 폭포수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키 큰 장정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뒷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불이 꺼졌다. 비상구 불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지하 상황을 알기에 뒷문까지 가서 문을 열고자 했지만, 결국 물의 압력으로 열 수 없었다. 다시 입구 쪽으로 가는데, 이미 천장 전선까지 갑자기 물이 찼다”고 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김 집사는 아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건네며 다른 이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지만, 아들도 살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엄마, 미안해. 엄마, 나 키워 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 외쳤다고 한다. 김 집사는 다시 아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하고 많이 못해 줘서 정말 엄마가 미안해”라고 외쳤고, 두 사람은 같이 회개기도를 했다고 한다. 또 울고 있는 노부부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김 집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들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들도 구원해 주시고 함께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울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 물이 다 찼고, 함께 물 속에 빠졌다고 전했다. 김 집사는 “더러운 물을 먹고, 물이 코로 들어가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님 품에 빨리 안기게 해 주세요. 이렇게 숨 못 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했다. 힘을 빼고 주님께 내 몸을 맡겼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다섯 번째가 돼서야 숨 쉴 공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코와 귀에서 물이 빠지는 걸 느낀 김 집사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적막뿐이었다. 노부부의 울음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김 집사는 울며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 집사는 “울며 하나님 앞에 ‘왜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느냐’ 물었다. 제가 9월 한 달 작정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엄마의 건강과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열방의 영혼들에게 네 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만 설명해 주셨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며, 정말 큰 상급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군사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택한 자와 준비된 자만 올 수 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은숙 집사. ©오천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시는 일을 했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감사가 넘쳤다”며 “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형제를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와 많은 영혼을 주게 돌아오게 할 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김 집사는 “그러면서 ‘저도 아들과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지, 저는 왜 살려 주셨느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하셨다. 가족과 형제, 어린이 세대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며, 너는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 또 사도 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해주셨다”며 “제가 살아난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고 했다.

김 집사는 “물이 내려가 오른쪽으로 나가는 도 되는지 물었는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셨다. 내려가는 순간 물에 잠긴다고 하셨다. 그러면 구조대를 보내 달라고,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했다. 기도를 마치자 불빛이 보이고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저는 구조됐다. 구조원에게 ‘우리 아들은요?’ 그렇게 물어도 답이 없었다. 알면서도 계속 울면서 물었다”고 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수액을 맞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김 집사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세 번의 환상의 그림을 보여주셨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운 초원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아름답고 푸른 초원은 처음 봤다. 그 초원을 우리 아이가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여 주셨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초원에 맑고 잔잔한 강 같은 호수를 보여 주시며, 아들이 춤을 추듯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세 번째 그림은 그 초원에서 예수님께서 하트 모양을 하시며 손을 들고 계셨다. 아들이 마구 빠르게 춤을 추며 신나서 기

쁘게 예수님 품에 달려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저는 못 믿겠다고, 아들 얼굴 보기 전까지 못 믿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집사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살아 줘서 고맙다’면서 아들은 천국 갔다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영영 울었다.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과 둘이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다. 잠을 한 숨도 못 잤다. 그 병실 안이 제가 물 속에 빠져 있는 듯 숨을 쉴 수 없어 결국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었다”며 “잠을 못자고 꼬박 날을 새며 말씀을 봐도 찬양을 들어도 계속 아들 생각이 떠올라서 한 숨도 못 잤다”고 했다.

김 집사는 “병실에 찾아온 동생이 제가 14시간 갇혀 있었다고 했다. 원래 갇혀 있는 걸 싫어하는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셨기에 공포감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입술로 고백했다”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막내동생이 지하실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물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다. 듣든 아니 듣든 순종했다”고도 했다.

그리고 기자들을 피해 일찍 입관예배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드디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집사는 “아들 얼굴을 보러 들어갔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편히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제사야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다 믿고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해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입관식을 통해 힘을 얻었다. 제가 살아야 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집사는 “코로나 때도 혼자 복음을 전하려 많은 이를 만나게 하셨는데, 병실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기쁨이 부어지는지,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라며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하길 소망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앞으로도 나누며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주의 길을 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신의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그렉 로리 목사 “기도는 최후의 수단 아닌 첫 번째 수단”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기도에 관해 조언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1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내 슬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해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사형이 임박했을 때, 초대교회는 가장 큰 시험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로리 목사는 “해롯은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구금했다. 그는 2개의 문 안쪽에 감금되었고, 2명의 경비원이 지키는 가운데 사슬로 묶여 있었으며, 14명이 더 지키고 있었다”며 “베드로가 일주일의 버틸 확률은 매우 희박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원의원에게 전화를 하겠는가? 시위를 조직하고 의회 앞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겠는가? 부정적인 게시물로 트위터를 채우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5절은 그들의 전체적 전략을 알려준다. 베드로는 간헐적으로,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에는 기도라는 비밀병기가 있었다. 다른 모든 문들은 닫혀 있을지라도 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저장한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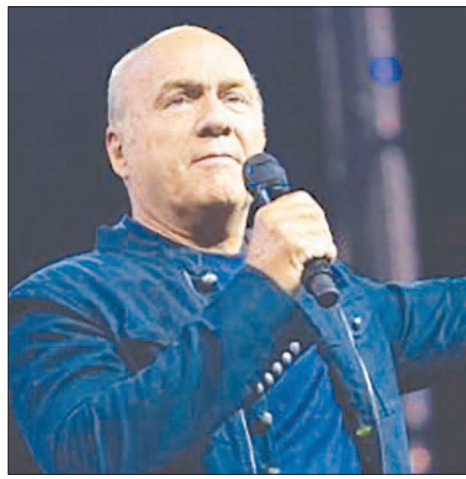
기도한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첫 번째 수단으로 기도했고,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이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언급한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해당 말씀의 시작 부분에 있는 ‘만일’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끄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길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대교회도 ‘끊임없는 기도’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열렬한 기도’로도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열정의 기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마음이 없기에 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기도에 너무 적은 열정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에 많은 열정을 쏟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과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기도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 미니스트리

다”고 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빨리 기도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 그러나 원어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문을 계속 두드릴 때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 받는 자녀인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한 번역은 우리에게 ‘뻔뻔한 담대함’으로 기도하라고 제안한다

눅 11:8). 문제를 놓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말씀하셨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기도로 연합하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사슬을 끊고 옥문을 열어주셨다”며 시편 61편의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61:1~2)라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했다.

그는 “마음이 벅차오르면 더 높은 곳을 찾기 시작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들어올리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낙태하러 가던 여성, ‘이 영화’ 보고 마음 바꿨다

### ‘라이프마크’ 커크 캐머런 인터뷰서 사연 소개

최근 알렉스-스테판 켄드릭 형제와 함께 친생명 영화 ‘라이프마크’(Lifemark)를 제작한 할리우드 배우 커크 캐머런(Kirk Cameron)이 “이 영화가 낙태될 뻔한 태아를 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캐머런은 페이스와이어(Faithwire)와의 인터

뷰에서 “켄드릭 형제가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일하는 한 남성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 남성은 한 소녀를 태웠고, 그 소녀가 가려는 곳이 낙태 클리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캐머런은 “그 운전자는 마침 얼마 전 영화 ‘라이프마크’를 보았고, 그것에 깊은 감동을 받은 상태였다. 운전사는 여성에게 그 영화에 대해 말해 줬고, 낙태를 결정하기 전 이를 보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러겠다고 그 영화를 보러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녀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또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고 했다.

이 영화를 제작한 퓨어플릭스(Pure Flix)의 마이클 스콧(Michael Scott) CEO도 “켄드릭 형제들과 커크가 참여하면서, 이것이 관객들에게 확실한 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고 말했다.

9월에 극장에서 초연된 라이프마크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뒤집고 이 문제를 주정부로 되돌린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캐머런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도 같다”며 “

항상 정확한 시간에 착륙한다”고 말했다.

스콧은 캐머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일대일이든 우리가 만드는 영화를 통해서든 다른 포럼을 통해서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라이프마크는 11월 22일부터 퓨어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된다. 강혜진 기자

## 전 사탄숭배자 “기독교인의 헬리윈 참여는 ‘마귀와의 원나잇’”



미국의 전도자이자 작가인 존 라미레즈(John Ramirez)가 “기독교인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헬리윈의 관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과거 사탄숭배자였던 그는 헬리윈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력을 높일 것을 조언하며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푸에르토리코 혈통인 라미레즈는 8살 때부터 사탄숭배에 빠졌다. 아버지와 친척들에 의해 신비술에 입문한 그는 이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요술, 주문, 저주 및 유택탈을 전문으로 하는 뉴욕시 고위 사제가 됐다.

20년 동안 귀신이 들렸었다는 라미레즈는 어둠을 드러내는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특히 다른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이슬람과 불교와 같은 종교는 오컬트나 뉴에이지 관습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부처나 무함마드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

라미레즈는 CP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사탄교회의 창시자인 안톤 레비(Anton Lavey)는 자신의 말로 ‘나는 모든 기독교인 부모에게 감사하고 싶다. 부처도, 무함마드도, 그 누구도 아닌 모든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감사한

### 영적전쟁 진지하게 분별할 것 강조

다. 자녀들이 1년 중 하룻밤 마귀를 축하할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하룻밤이) 바로 헬리윈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귀신의 옷을 입히고, 정체성을 바꾸고, 영적으로 희생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거듭난 기독교인이 된 라미레즈는 지난 20년 동안 사탄의 계락을 폭로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 그는 “마귀가 일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하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며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영적인 분위기와 기회가 있다. 우리는 정확해야 하고, 끈기 있게 그러한 기회를 정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마귀가 실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분별력을 훈련하고 성경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이들은 영적 전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마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마귀와 대적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좇아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라미레즈는 “몇 년 전 마법의 세계에서 활동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빈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난 기독교인들에게 기쁨 부음의 권세와 흑암의 왕국을 멸망시킬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들은 실행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신의 통찰력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귀 해체하기’(Unmaking the Devil)라는 제목의 8주 과정을 제작했다.

### 영적전쟁 진지하게 분별할 것 강조

그는 “마귀를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악마를 폭로해야 한다. 우리는 세대의 저주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연약한 마귀를 돌아야 한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의 모든 종류의 견고한 속박을 돌려야 한다”며, 기독교 부부 사이의 높은 이혼율을 보여주는 통계를 언급했다.

라미레즈는 또 헬리윈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원나잇 스탠드로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헬리윈을 축하하러 간다. 나에게 그것은 마치 하룻밤 동안 마귀와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속이고 싶은가? 예수님은 당신을 속이지 않으신다. 나는 사탄숭배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안 된다”고 했다.

라미레즈는 다른 고위급 사탄숭배자들에게 ‘어둠의 문지기’로 임명받아 오컬트에서 25년간 봉사했다. 그러나 1999년 그는 죽음을 경험했고, ‘깊은 잠’에 있는 동안 지옥에 다녀 왔다고 한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다시 살아났을 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가 오컬트를 떠나기 위해 전환을 시작했을 때,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집에 있는 10만 달러 상당의 우상을 포함해 오컬트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여전히 고통을 받았다.

그는 “그들은 나를 파멸시키고 내 영혼을 내 몸에서 떼어내려고 요술을 부리곤 했다. 마귀는 밤에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예수님을 외칠 수가 없었다. 마치 마비된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내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세벨이 내 침실로 들어와 내 옆에 누웠다. 내 침대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에

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방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라미레즈는 30일의 고통을 겪었고, 주님은 수년간 원수를 섬긴 후 새로운 믿음을 가진 그에게 이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는 “30일 만에 (고통이) 없어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왜 제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니 보고 싶었다. 그들이 다시는 너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 후 마귀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는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시며,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했다.

라미레즈의 8주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친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사탄숭배자들에게) 마법의 달이고 마법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는 “그들은 일관성이 있다. 놓고 있지 않고, 당신의 삶의 영적 영역을 정복한다. 어떻게 악마의 길을 막고 그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을 되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용서의 모범을 따랐고, 내게 잘못된 이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의 한 예다. 마귀는 당신의 목표와 정체성을 훔치려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천국에 갈 때 주님께 가져갈 간증 없이 불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당신이 약속의 땅을 얻는 데는 항상 전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택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 프로지골드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섬김자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로 세운 밝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가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기도(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2:30 한여정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미 기독교 기업 칩필레, 십대 선호 외식 브랜드 1위

미국의 기독교 기업 칩필레(Chick-fil-A)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에 선정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제44회 반년도 10대 평판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18%가 가장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칩필레를 꼽았다.

이 설문조사는 투자은행 파이프 샌들러(Piper Sandler)가 의뢰해 8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미국 청소년 1만 4500명을 대상으로 십대들의 소비 습관을 분석했다. 2위는 스타벅스(10%)가 차지했으며, 3위 치폴레(7%), 4위 맥도날드(6%), 5위 올리브 가든(3%) 순으로 집계됐다.

칩필레는 음식과 서비스 및 기독교 가치를 지켜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1945년 고(故) S. 트루엣 캐시가 창업한 칩필레는 “말겨진 모든 것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칩필레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또한 주일 성수를 위해 모든 매장은 일요일 휴무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반면, 칩필레의 기독교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동성애 옹호 활동가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2012년 칩필레 CEO 댄 캐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성경적 약속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발언했고, 미국 일부 도시들은 칩필레 매장이 생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그의 발언은 미국의 많은 주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소재 칩필레 매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여성 스포츠볼 팀. ©칩필레 공식 페이스북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LGBT 활동가들의 보이콧 운동을 촉발시켰다. 2019년 10월, 칩필레는 영국 버크셔주 리딩에 첫 번째 지점을 오픈했지만, 동성애 옹호단체들의 계속된 항의 시위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았다.

2019년 칩필레는 타개책으로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신앙 기반 비영리 단체인 구세군, 기독교선수협회, 조지아의 폴앤더슨 유스홈에 대한 기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 결정은 보수 교계로부터 탄핵을 샀다.

칩필레는 현재 미국 47개 주, 워싱턴 DC, 캐나다 및 푸에르토리코에 26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외식주단지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기업은 2019년 110억 달러 이상을 판매하며,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 美 법원 “신앙에 따른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는 합법”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캐서린 캐시 밀러. ©캐서린 캐시 밀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과점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이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제작하는 대신 다른 제과점을 그들에게 추천한 것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2일 에릭 브래드쇼(Eric Bradshaw) 컨 카운티 판사는 판결에서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캐서린 캐시 밀러(Catharine Cathy Mille)의 유일한 동기는 항상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었다”며 “평등고용및주택부는 5년 전 밀러가 아이린과 미레야 로드리게즈-텔리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밀러는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테이스트리 베이커리 공식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즐겁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그녀를 지원했던 법률단체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것은 ‘수정헌법 1조의 승리’라고 했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폴 조나(Paul Jonna) 특별고문은 “종교적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률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캐시를 차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역설”이라고 했다. 그녀는 “캐시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이유로 반대 변호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그레고리 맨(Gregory Mann) 주 검사는 밀러에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려고 하는가?”라고 물었고, 밀러는 “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죄인이다. 난 죄인이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답했다. 이에 맨 검사는 “돼지나 조개류 등을 먹지 말라는 구약의 식생활 습관을 따르는가?”라고 물었다.

조나 고문은 “국가가 밀러의 믿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들이 밀러의 개방적이고 진지한 신앙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지위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불안하다”고 했다.

(고소인인) 텔 리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아이린과 텔 리오가 2017년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을 때 밀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는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등고용및주택부는 법원에 밀러와 그녀의 제과점에 대해, 그녀가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경우 웨딩 케이크 제작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다.

2018년 고등법원 데이비드 램프(David Lampe) 판사는 밀러의 이러한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며 주의 청원을 기각했다. 강혜진 기자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GMMA Medical Conference를 다녀오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환경이 교회와 선교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환경을 초월한 열정적인 선교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때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였고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빛을 내었다. 그들 중 한 동맹 그룹이 의료팀들의 연합이다. 지난 10월 21일에서 22일까지 알바인 베델교회(김한웅 목사)에서 'GMMA(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가 주최하는 국제 의료선교대회가 열렸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GMMA의 대표는 정수영 박사로서 창립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의료 선교를 통해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지금은 한인 의료진뿐 아니라 미국인 의료진 팀들도 합류하여 일 년 열두 달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든 자비량 선교로 찾아가는 백의의 천사들이 되었다.

이번 국제 선교 대회는 미주를 센터로 하는 약 33개의 의료 선교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협회'에서도 세계 의료 선교대회에 영적 동맹을 위해 가까이 참여하였다. 필자는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의료 선교의 영적 동맹에도 우리 한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리더십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았다.

미주를 중심으로 한 공식 NGO 의료전문 선교 단체가 100개가 넘는다는 것과 그중에 33개의 공식적 NGO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각 단체의 선교 보고 및 의료 사례 보고 등을 통해 현장 의료 정보들을 나누는 것들이 너무도 신비스러웠고, 감동적이었다.

국제 의료 전문인 선교대회에서 영어로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각 선교 단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력했던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남미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등 실로 세계 모든 곳에서 의료 선교팀들이 지난 일 년간도 끊임없이 헌신하며 열방의 생명들을 살려 내었던 것이다. 전염병 지역의 원인을 찾아내 식수가 오염된 지역은 정수 시설을 가짐마다 설치하여 그들의 오염된 식수 원인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재정 후원자들을 확보하여 무료 수술을 하고, 각종 병의 원인을 교육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 위생 교육 수준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의 의료 선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들었을 때 "아! 역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탄성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이 대회 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2-30대의 청년층 의료진들이 500여명 인원의 60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중 한인 2세 청년들이 80퍼센트 정도였다. GMMA 대표인 정 선교사에게 물었다. "청년들이 많네요?" 그분의 대답은 초기에는 중장년층의 의료팀들이 동원되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2세 의료진들이 자원하여 참여하더니 지금은 의료 선교의 주류가 되었다고 했다. 필자는 이들에게서 기독교인 의료진들의 사명감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청년 의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정기 휴가를 이용하여 온두라스, 멕시코, 볼리비아 등으로 의료 선교를 다녀온 청년, 중앙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다녀온 청년 의사팀, 필리핀 외진 섬들을 돌면서 의료 선교를 다녀온 2세 청년들의 선교에 대한 사명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청년들이 의학을 지원하는 신입 후배들을 이 대회로 인도하여 우리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는 목적이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선교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의 때 더욱 값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감사한다.

고급 호텔에서 지나치게 과분한 점심식사를 했던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던 날로부터 20년 이후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보자마자 잊을 수 없는 20년 전의 점심식사를 회상합니다. 그 점심 식사 이야기가 주요 스토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액자 소설이란 소설에 독립된 이야기를 삽입하여 스토리를 전개하는 소설의 형태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서머셋 몸의 “점심”

어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음료도 주문하게 됩니다. 작가는 물을 시키고 싶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니 화이트 와인이라면 마신다고 합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작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값비싼 화이트 와인을 주문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작가는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짠 음식인 양갈비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탁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점심 때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나아가 점심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던 그녀는 게걸스럽게 캐비어를 먹고, 연어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던 그녀는 값비싼 화이트 와인을 마십니다. 웅색한 작가는 속으로 약속을 정합니다. '노(No)'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지런한 이로 우격우격 음식을 씹으며 우아한 체하며 문학과 예술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작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돈으로 이달을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했고, 나중에는 식당에서 밥값이 모자라 창피를 당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연극을 관람하러 갔다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아는 척하지 않았다면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걸스럽게 먹었던 그녀는 133Kg이나 되는 뚱보로 변해있었습니다. 그녀가 체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탁월한 작가 서머셋 몸의 단편 “점심”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정직하지 못한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가난한 작가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아울러 상대를 배려하지도 않고 비싼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여인의 탐욕과 이성한 논리로 자신을 포장하는 여인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빼도 박도 못하

는 식사 속에서 여자가 음식을 계속 주문하고,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읽은 독자도 초조함과 짜증을 느끼며 일게 됩니다. 여자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최고조로 달했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그 여자의 몸무게는 자그마치 130Kg도 넘게 나간답니다.' 라는 구절을 보며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역시 '서머셋 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서머셋 몸은 좋은 작가입니다.

작품은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통해 남주인공의 탄방울 하나하나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까지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남주인공이 긴장과 초조 속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그리고 독자의 분노를 공유하는 작가는 몸무게가 133kg으로 불어난 여인을 소개하면서 탐욕의 결과를 유쾌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남자 주인공 가난한 작가의 모습도 석연치 않습니다. 점심은 안 먹는다고 말해 놓고 값비싼 음식을 먹어치우는 여주인공이 얄밟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는 남자의 모습도 한심합니다. 남주인공의 소심함이나 이중적 모습은 아쉽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삶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해악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비극을 설명합니다. 독자로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자신의 탐욕(식탐)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여유가 없고 자신도 관리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다음은 '용기'입니다. 이 작품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작가는 노(No)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여인이 고급 호텔식당을 말할 때 단호하게 노(No)라고 해야 했습니다. 작품은 가난한 작가를 통해 "노(No)"를 못하는 우리들을 지적합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세 번째 해악은 '허세'입니다. 가난한 작가의 문제는 허세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좋은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이 없나?'라고 묻습니다. 허세로 망합니다. 가난한 작가는 허세스런 한끼의 점심을 먹고 큰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너무 비싼 가방을 사고, 너무 비싼 자동차를 타고, 너무 좋은 집에 살며 고생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당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연락문의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디도서 1:5~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첫 째로 세우신 목자가 하나님에 보내셔서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여야 할 것이고 그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며 양떼들로 하나님 기대에 합당한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 방침이 확실하고 영적 체질 신앙이 하늘나라로 통하는 교회가 됐을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심령들이 최악의 응어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의인의 반열에 거룩한 성도로 구원을 얻어야 하며,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서 목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합심 전력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방색을 드러내며 폐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바로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전심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바울의 선교를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으로써 디도(원어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체계적인 복음을 깨우쳐 주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력으로 무장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함께 모시고 살면서 바울 사도께서 밤낮 소원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삶의 목적이 뭐가 그것을 디도가 잘 깨달았습니까. 디도는 성경에서 디모데와 같이 사도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성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힘쓰다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 사명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 또 사명 의지와 또 희생 봉사하는 것을 그대로 전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거침없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 바울을 믿음으로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성숙되고 또 수

준급으로 자라게 됐기 때문에 그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마다가 남겨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때엔 신학교 제도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 누구를 교회의 목자로 세운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여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무슨 부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고 또 바울이 명한 대로 각 동네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를 위한 목자를 여기서 장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써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 받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한것은 일부다처제로 여자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일들이 아주 불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탕하다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녀들, 아내나, 부모님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확실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를 일명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중략)...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약점이 많고 책망받을 일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칼날같이 찢러 쪼개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게 될 때에 자기 입장때문에 힘 있는 교훈을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고 그 반대로 그 약점이 상대방들로 하여금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애타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 각오로 피나는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 순교하기까지 힘쓰고 애썼던 것은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함이 첫 째였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성과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중략)...가르쳐 집들을 온통 엮으려치는도다”

이 말씀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여러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의 지도자들은 아부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주머니를 노리고 뺏어 챙기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고집한다고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아주 헐뜯고 비방하면서 예수 같은 거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없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주머니 털어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들이 망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하늘 복을 얻어 하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 또 악한 짐승처럼, 또 배만 위하는 거짓말쟁이 되지 말자는 것과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답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

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의 악함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영적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속아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에 사도바울 혼자서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다 보살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총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손발 노릇을 잘 하므로 그레데의 복음을 위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중략)...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하는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비방 듣게 하고 못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자가 되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고 그간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자격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바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 끝날까지 지원하는 열심으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이 모범적인 생활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모습을 갖추어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www.anointingchurch.org

# The 특별한 금요일예배

남가주 어노인팅교회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The 특별한 금요일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에는 성경의 깊이가 탁월하며 인품이 아름다우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 예배를 통해 한국과 타국, 타주에 계신 목회자들과 선교사,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선원 100명과 현지 선교사님 7분과 은퇴 선교사 20분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방법: 헌금, 헌신(선물포장), 헌물(옷, 양말, 모자, 과자, 볼펜)  
문의: 남상권 목사 213 800 3651

매월 둘째주 금요일 7:30PM  
특별한 저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1월 18일 최 훈 목사(주님의교회)  
12월 16일 권도근 목사(나들목 비전교회)

예 배 시 간		Anointing Education Dept.
새벽예배	(화~금)5:30AM, (토)6:30AM	Worship Time Sun 10:30 AM
수, 금요일예배	7:30 PM	Bible Study Sun 1:00 PM
주일예배	1부 8:00 AM	
	2부 10:30 AM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유튜브 검색 -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남가주 ANOINTING CHURCH 어노인팅교회 | 담임목사 남상권 213.800.3651 |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강준민 칼럼

배움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배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배움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배움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배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배움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배운 것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마치 새가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반복해서 날개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왜 배워야 하는지를 거듭 질문해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많이 발견할수록 우리는 배움에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배움의 이윤란 배

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같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배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배움이 소중한 까닭은 배움을 통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성장을 낳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 거목이 되는 것처럼 배움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배움을 통해 지식이 자랍니다. 지식이 자란다는 것은 지성이 개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움을 통해 지혜가 자랍니다. 지혜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예견력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자라면 지혜가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영성이 깊어집니다. 배움을 통해 인격이 자랍니다. 배움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살후 1:3). 배움을 통해 사랑스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눅 2:52하). 배움을 통해 탁월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배워 큰 나라 큰 백성이 되었습니다(신 4:6).

배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주제를 배운다는 것은, 새 주제가 전개해 줄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의 저자와 만나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와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고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과 새로운 배움은 우리를 다양한 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우리를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걷는 것과 말을 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을 타는 것과 차를 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과 우주선을 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배움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배움을 통해 우리는 깊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변화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고후 3:18; 롬 8:29). 예수님처럼 잃

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예수님의 제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요 17:4; 행 20:24).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올바로 배워야 올바르게 자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기본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거듭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질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배운 사람입니다. 기본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견고하면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고전 3:11). 기본이 잘되어 있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이 잘되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배우는 지혜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양육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나눔으로 더욱 잘 배우게 됩니다. 배운 것을 나눔으로 배운 것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소중함을 거듭 기억하십시오. 올바르게 배우기를 힘쓰도록 하십시오. 거듭 기본을 다지십시오. 기본을 다지는 중에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배움을 통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십시오(엡 4:13).

송재호 칼럼

내가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한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구하며 기다려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꼭 거쳐

야 할 준비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 필히 건너야 하는 길이며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의 한복판에는 항상 “절망”이라는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는 더욱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광야의 시절을 잘못 된 태도로 임하거나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다가는 더 견디기 어려워지고 더 큰 좌절과 패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서 벌을 주는 곳이 광야라고 오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깨달음 사이에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들

이 잠깐만 머무를 수 있었던 광야에서 일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보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하나님을 대적(對敵)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교만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도 교만해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망각(忘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키워드(keyword)는 ‘기억하라(remember)’, ‘잊지 말라(don't forget)’이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메마른 곳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만나서 물으면 힘들다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광야 같은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버지니아 헬로쉽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전 담임 목사님의 타 지역 이임으로 인해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 합니다.

1. 지원자격:

- 언어: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 신분: 미국체류 및교회 근로에 결격의 사유가 없으신 분 (영주권 이상 소지)
- 학력: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경력: 목사 안수 후 5년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 (서류작성 내역은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웹사이트에서 [청빙서류작성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참조하십시오)
- 이력서 1부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양식 다운로드)
- 자기 개인 간증 및 소개서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포함)
- 사모님 신앙 간증문 1부
- 목회 철학 및 비전 1부
- 목회 계획서 1부
- 설교 동영상 2편 (1편은 최근 6개월이내 설교)
- 추천서 2부\* (최소 1부는 목사님으로부터)
- \*추천서는 담임목사후보가 아닌 추천인이 직접 아래 청빙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양식 다운로드)

3. 제출 마감: 2022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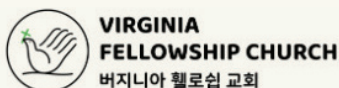
마감일까지 모든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4. 서류 제출처: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astorsearchvfc@gmail.com

• 서류 전형후 개별로 이메일 통지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5. 문의 및 연락처: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 김시홍(Sihong Kim)장로 (Email: pastorsearchvfc@gmail.com)



담임목사 청빙공고

뉴저지 Maywood에 위치한 주섬김교회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후보 자격

1. KPCA 소속 목사님 또는 KPCA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이상의 학위 소유하신 분
3. 목사 안수 받은 후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이신 분
4. 연세 만55세 이전이신 분
5. 한국어와 영어 의사 소통에 문제 없으신 분
6. 미국내 목회 활동에 법적 사유가 없으신 분

구비 서류

1. 이력서 (본인 및 사모)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신앙 고백 1부
4.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5.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신학 대학원)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추천서 2부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8. 최근 설교 온라인 링크 또는 CD (3부)

제출 마감 : 2022년 12월 18일 까지

제출처

1. servinggodfellowship@gmail.com
2. 수신자 청빙 위원장 여용호 전도사
3.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일에만 사용됩니다.
4.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섬김교회



진유철 칼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므로 죄를 짓고 영이 죽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땅에는 가난과 저주가 가득하

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미움과 살인과 전쟁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인간은 병들고 죽게 되어 심판을 받아 영생지옥에 가는 절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여셨으며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침례를 받아 교회생활을 하는 성도는 선악으로 죄를 상대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제물의 피를 성전의 물건들과 성소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진영 바깥 정결한 곳

으로 가져다가 불사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지만, 육체의 죽음은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13:11-12)”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죄 사함을 얻는 곳으로 죄 문제는 교회 밖에서 불태우며 처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다 쓰레기가 생기고 더러운 빨래도 나오니까. 하지만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빨래가 빨래통 안에 있지 않고 쓰레기가 아무데나 있고 빨래가 침대 위나 식탁 위에 굴러다닌다면 더러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교회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아닌 신앙의 갈등과 사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죄 문제에 대한 선악의 판단이 십자가의 은혜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영문 밖의 일이 되어야 할 죄가 세상 신문과 뉴스의 일면처럼 교회의 이슈가 되어 선악으로 죄를 상대하면 미숙한 신앙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는 능력이 넘쳐나고, 예수 생명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새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친일 행각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일제는 소위 대동아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기독교 연합회장 부전만(福田滿)을 한국에 보내 '기독교의 신(新)체제'라는 제목으로 한국 교회의 황국화(皇國化)와 교파합동을 촉구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합동을 위하여 1942년 정월부터 교파합동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일을 추진하는 인사들이 새문안교회에 모여 '조선기독교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곳에서 그 해 7, 8월경에 새 교단 창설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감리교 측이 소위 혁신 기독교단에 관한 12개 조의 혁신안을 제출하면서 이 일은 무산되었다.

조선총독부 보안과장은 당시 경기도회장이었던 전필순 목사와 몇몇 장로교, 감리교 지도자들을 만나 전쟁 수행을 위해 교회가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두 가지 일의 수행을 권고하였다.

첫째는 구약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구약이 유대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쟁 수행 중인 일본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를 고취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둘째는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일본의 개국신(開國神)을 둔 신단(神壇:가미다나)을 예배당에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감이 통합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혁신교단이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장로교회 인사들은 전필순, 윤인구, 류재한, 최석주, 세 목사였고, 감리교회 측에서는 정준수, 이동욱, 갈홍기, 심명섭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혁신교단은 사실상 감리교회측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 혁신안에는 “신약성서를 기초로 하여 교의를 선포하고 구약성서에 나타난 유대사상을 일체 없애기 위하여 구약성서의 새로운 해석교본을 제정”하여 신도들을 가르치자는 것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을 정경에서 제외하여 없애자는 것이었다. 또한 이 교단 설립의 목적이 철저히 친일적인 것이었음이 후에 드러났다.

그 사업으로써 “일본 군사훈련 등 황민화운동을 장려하고 교회 내에서는 신학교를 개혁하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지도자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내용이 있었다. 요컨대 미국과 영국 등 서양에서

수학한 사람들에 의해 과급되는 미·영 사상을 불식시키고 일본에서 수학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사들의 신학을 배제하고 일본적 정신으로 신학교와 교회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추진했던 감리교 측의 제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통과되자 이에 불복하고 감리교회가 탈퇴하여 결국 이 합동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처음에 혁신교단은 장로교회의 전필순 목사를 총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일로 장로교회 경기도회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전필순은 탄핵을 받았다. 전 목사는 하는 수 없이 혁신교단에서 탈퇴하였고, 혁신교단은 조선감리교단으로 환원하였다.

일제는 또 다른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한 지역에 여럿 있는 교회를 통폐합시키고, 남은 예배당을 팔아 전비(戰備)로 쓰려는 술책이었다. 일본 교회는 1941년에 30여 개에 이르는 교파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교회로 합동을 이루었다. 이 합동이 교회의 자의적인 것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국가 권력의 힘에 밀려 타의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일본 교회 안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명제인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 달리 완전히 일제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 지역에 여럿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이 일은 작은 동네에 교인도 많지 않은 여러 교파 교회가 난립해 있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간 갈등의 소지도 있다 하여 하

나로 통합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없어지는 예배당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추악한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감리교회는 저들의 시책에 발맞추어 소속 교회의 병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1. 본 교단 실시 사항 6항에 의하여 인접 교회의 병합을 단행하여 미약한 교회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폐지된 교회의 부동산은 이를 처분하여 애국기 헌납금 및 교단 운영 자금으로 삼을 것. 2. 교회 병합의 실시는 각 교구별로 이것을 정리하여 오는 4월 이내에 수속을 취한다. 3. 병합실시 지역은 평양, 해주, 경서, 인천, 진남포, 원산, 강경, 강릉 등 수개 이상 교회가 같은 도시 안에 있는 것은 이를 병합할 것.

이에 따라 병합되는 교회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성이 13개, 평양이 6개, 원산, 해주, 개성, 인천이 각 3개, 진남포 2개, 강릉, 강경이 1개로서 총 7도시와 2읍에서 모두 34개 처의 교회, 30여 개의 사택, 20여 개의 부속 건물이 병합되기에 이르렀다. 교회 병합에 의해 없어진 예배당과 기타 건물들로 인하여 생긴 돈은 모두 국방헌금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교회들을 강제 통폐합 시키고 남은 예배당 건물을 팔아 전비로 쓴 일제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망하겠는가? 한심한 사탄의 제국주의 국가가 바로 일본 제국이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AUTO COLLISION CENTER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정보 과식, 폭식, 편식을 피하는 지혜를 배우라

# 성경보다 SNS와 인터넷을 더 참고하는 당신에게



**지혜 피라미드**  
브렛 맥크라켄 | 윤상필 역  
성서유니온 | 240쪽

**정보 과잉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의 토대 쌓기**

이 책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는 정보 폭식 시대에 뒤집힌 지혜의 우선순위에 대한 치료제다!

다. 단순히 정보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쌓이고 있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두뇌에 집어넣고 있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그 폐해가 무엇인지 매우 예리하게 분석한다.

정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교회 밖에서도 많이 문제 삼고 있지만, 맥크라켄은 보다 깊은 차원의 영적 문제도 다룬다.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골라 먹는 나쁜 습관으로 정신과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있다.

깊이 그리고 오래 하나님의 옛길을 묵상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 핫이슈를 쫓아 눈과 마음을 오로지 '지금'에 고정하며 살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내 생각을 다듬는 기회는 줄어들고, 파편화된 정보 그것도 내가 골라낸 정보로 사고도 마음도 외골수가 되게 만든다.

독자는 자신이 습관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오늘날 보편적 방식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순히 '옛날에 다 암기했던 친구들 연락처를 이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을 못하네, 오히려 머리가 스마트해지지 않게 된 것 같아'라는 문제 인식을 뛰어넘는다.

정보 과잉의 시대, 습관적으로 정보를 습득,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래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조용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감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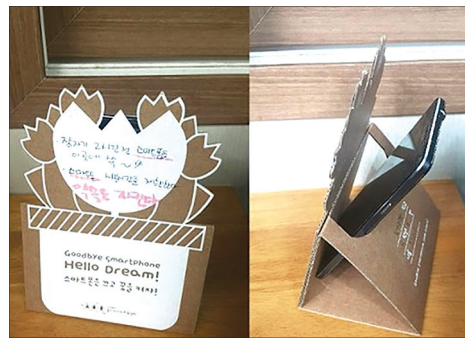
진리가 무엇인지 오래 사고하며 참된 것을 찾아 애쓰기보다, 파편적인 정보와 진실성은 낮고 신속성 그리고 화제성에만 극단적인 중점을 둔 껌데기 정보만 우리 두뇌에 가득 채운다.

한 마디로 우리 영혼은 심각한 정보-지혜 불균형 문제에 빠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영양소 피라미드가 있는 것처럼 '지혜 피라미드'가 필요하다.

책의 커버 디자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저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의 원천으로 하나님 말씀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회, 그리고 만물(자연), 책, 아름다움(예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다.

6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원천 중 저자가 말하는 대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 교회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킨다. 책과 아름다움은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가장 최소한으로 이용하되 역시 성경을 잣대로 분별해야 한다.

교회도 역시 중요한 정보의 취득 보고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서로를 권면할 수 있고, 공동체는 개인이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미디어 금식'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차단 가림 거치대.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지혜롭게 정보를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권위를 최고로 삼는 시대에, 교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지체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몸 안에서 나는 단지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고 다른 지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낮은 자세를 갖게 한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워더라도 귀에 음악을 꽂고 눈으로 미디어를 보면서, 거의 배경화면처럼 감상한다.

만물이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직 그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과 예술은 많은 집중을 요구한다. 저자와 만나 그의 생각에 깊이 잠기는 것, 예술

이 만들어내는 깊고 풍부한 아름다움에 폭 빠져 감상하는 것. 우리는 그 속에서 집약되고 절제된,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정보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쪽정이 같은 정보를 걸러내고, 알곡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반드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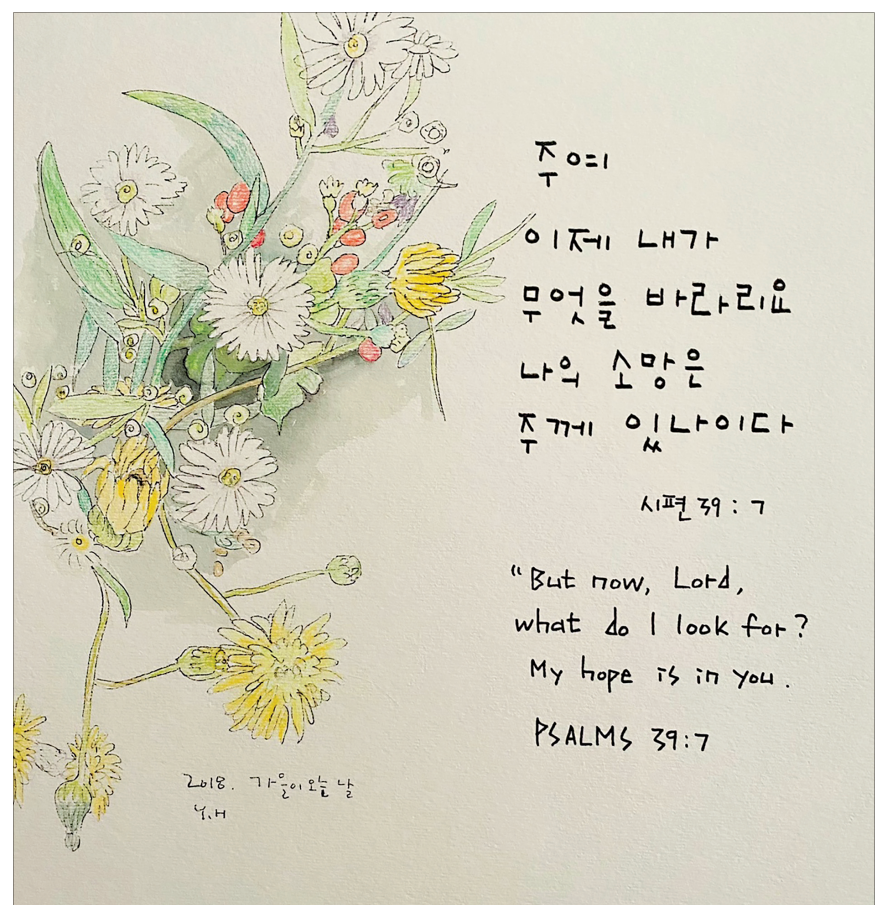
브렛 맥크라켄의 <지혜 피라미드>는 울해 읽은 책 중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책 중 하나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의 문제를 다룬 책은 종종 있었지만, 정보 과잉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드물어 신선했기 때문이다. 또 그 문제를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고 독자에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정말 좋은 책이었다.

저자가 말한 문제에서 오늘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지혜 피라미드'가 필요하다. 많은 영양소 피라미드가 유용한 정보를 적절히 잘 제공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먹는다.

<지혜 피라미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맥크라켄이 제공한 지혜 피라미드를 봐야 하고, 또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넘쳐날 정보 홍수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남게 하시길 구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만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임목사 청빙공고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 교단(PCA)에 속한 교회로, 이 지역의 우수 대학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전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시고 복음중심적인 목회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교회 소개 및 배경 설명: 아래 링크 참조  
<https://tinyurl.com/5e7mz3pn>

**자격**

-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PCA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 담임목사나 부교역자로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목회 비전; 가족 소개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원본은 청빙 수락 시에 요청합니다)
- 설교 2회분 (link):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은 1회분 추가
- 추천인 3인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목회자 2인 포함)

**제출 방법**

- email to: s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바람

**제출 마감**

-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는 접수되는대로 시작함)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Pittsbur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오드리 플랙의 바니타스 정물화

# 정물화를 탄생시킨, 전도서 1장 1절 '바니타스'

바니타스,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덧없는가? 17세기 정물화, 오드리 플랙에 의해 다시 주목 전도서의 헛됨 주제로 한, 유대인 작가의 그림 물질주의·세속주의 허우적대는 현대인에 경중

미국 여성화가 오드리 플랙(Audrey Flack, 1931- )의 초기 바니타스 연작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의 불가피성에 주목하는 정물화에서 비롯되었다.

바니타스(Vanitas)란 전도서 1장 1절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에서 비롯된 용어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문화적 저력을 보인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 주도로 확산되었고, 중국에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란 뜻을 지닌 정물화(Still Life)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다. 미술사에서 '바니타스 정물화'는 한 동안 조용하다 현대에 들어와 오드리 플랙에 의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다.

한때 뉴욕스쿨 일원으로 있다가 극사실주의로 스타일을 바꾼 오드리 플랙은 <마릴린>(바니타스, 1977)에서 헐리웃의 여배우 마릴린을 등장시킨다. 플랙은 스타 마릴린을 정의하는 향수병, 화장품, 화려한 장신구와 소녀 시절의 옛된 마릴린의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였다.

또한 플랙은 불타는 촛불, 시간을 앞당기는 모래시계, 포켓워치, 쪼그라드는 오렌지와 함께 마릴린을 제시함으로써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인간의 욕구를 부추기는 허영심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명품가게 앞에 줄을 서는 광경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명품을 소유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과 부유층에 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 <마릴린>, 오늘날 명품관 '오픈런' 떠오르게 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박탈감이 오히려 명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낳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명품에 들떠 있는 모습은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의 작품 <일곱가지 대죄>(1485-1500) 연작에서 화려한 보닛을 쓴 여인이 악마가 거울을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허영에 들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오드리 플랙의 작품은 우리 삶의 일시성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준다. '명품 마켓의 성전'에서 구입한 상품들을 고귀하고 성스럽게 여기거나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도, 죽

음을 막지도 못한다.

명품 마켓의 세계는 인간의 충동이 아무 통제도 없이 활개를 치는 비인격적이고 차가운 세계이다. 이것은 잠시 동안 기쁨과 만족감에 빠지게 할 수는 있어도, 곧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들이다. 플랙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매력적인 색상과 황홀한 질감에 담아 어필하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혼돈된 사회상을 비판한다.

플랙이 일련의 바니타스를 제작한 데에는 종교적 배경도 작용하였다. 플랙은 동유럽에서 이민 온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히브리어를 읽고 말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종교와 자신의 전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작품에서 눈여겨 볼 점은 그의 회화가 황금기 네덜란드 화가들의 바니타스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그만의 방식으로 바니타스를 재구성하였다. 작가에게는 바니타스 회화가 인간의 역사와 현실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며 모순에 차 있는지 들여다 보는데 요긴한 인식 틀을 제공하는 셈이다.

플랙의 또다른 바니타스 작품인 <제2차 세계대전>은 그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야망이 빚어낸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플랙은 이 작품에서 실물 같은 착각을 주기 위해 트롬페이유(trompe l'oeil) 수법을 활용하였으며, 배경에 흑백사진을 배치하여 강렬한 콘트라스트를 주고 있다.

화면은 과일, 꽃, 양초, 주얼리, 찻잔, 나비, 사진 등 복잡한 상징적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흑백사진은 종군 사진작가 마가렛 버크 화이트(Margaret Burke White)가 연합군을 따라 독일 바이마르 인근의 부헨발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을 원용한 것이다.

지친 표정의 유대인 수용자들이 철망을 붙들고 있는데 이 수용소는 25만 명이 수용되었고 최소 5만 6천 명이 수용소에서 굶어죽거나 죽을 때까지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해 '죽음의 수용소'로 불렸던 곳이다.

철조망 뒤에 서 있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얼굴은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듯 체념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



마릴린(오드리 플랙, 캔버스에 유채, 1977, 애리조나대학 미술관 소장).

유일한 구원이 죽음뿐이었던 그들에게 해방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하다. 해방의 순간조차도 그들에게는 죽음의 환영(幻影)으로 비추어질 따름이다.

마가렛 화이트는 "내가 본 광경은 너무 믿기지 않아서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술회하였다.

플랙은 흑백 사진 앞에 여러 기물들을 배열하였다. 광택이 나는 은쟁반 위에 있는 페스츄리, 고급 찻잔과 촛불 등이 흑백사진과 대조를 이룬다.

### 기독교 정신 현대미술 접목 가능성 보인 작품들

플랙은 왜 다양한 기물들을 융합했는지 말한 적이 있다. "내 생각은 전쟁의 우화, 삶의 우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선과 악의 폭력적인 대조를 이루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인간성의 궁극적인 붕괴-나치-이보다 더 격렬한 대조가 있을 수 있을까?"

마가렛 버크 화이트의 충격 못지 않게, 플랙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작가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림 하단에는 하시드 지도자 나흐만(Nahman of Bratslav)의 글귀가 보이는 서적이 펼쳐져 있다. 책 가운데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의 치졸하고 속된 삶으로 인해 우리 시야에서 가려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눈앞의 손을 치우듯 자기 시야에서 그런 삶을 치워버리는 사람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나흐만의 말을 인용해, 플랙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싶었으리라.

오드리 플랙이 사용한 바니타스 회화는 오래 전 유행했던 미술 장르이다. 그런 미술을 400여년 만에 되살린 것은 의미가 있으며, 기독교 정신을 현대 미술에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의 작품을 '상징주의의 스모르그스보르드(Smorgasbord)'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넓게 보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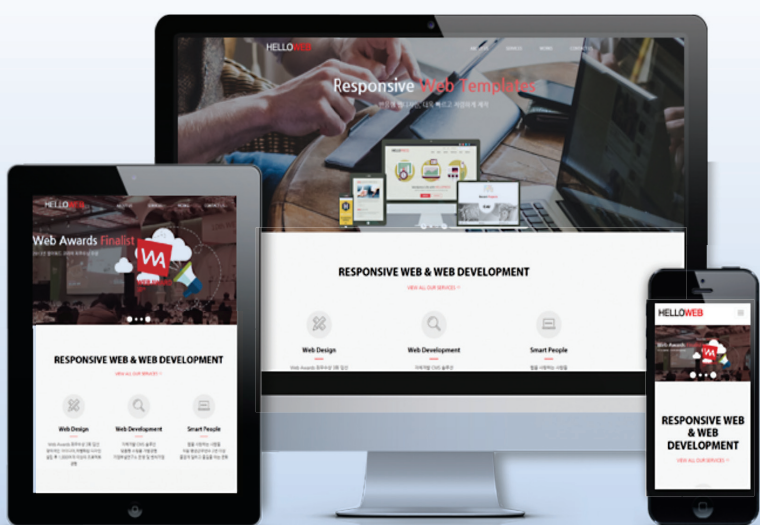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예술은 그들에게 현실을 명확히 해준다고 믿는다."(오드리 플랙) 우리가 속한 세상이 얼마나 '진리의 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의 회화를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b>제작비</b>	\$300 +
<b>기본사항</b>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b>추가사항</b>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약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b>관리비</b>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KIDOK SHOP

# Thanksgiving Sale

www.kidokshop.com



기독교샵 바로가기

-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 이름 특별전



면역버섯17강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발효홍삼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개성홍삼젤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호모비오틴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ABC콜라겐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뼈건강 칼슘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키즈텐 3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파워온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휴젠푸드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간건강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기억력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 이름 제품 구매시, 2가지 혜택

-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무료 증정 (사이즈 랜덤 배송)
- 무료 배송

기독교샵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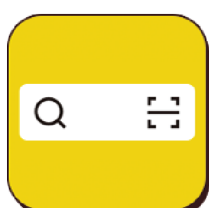
###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추가하세요!



step 1.  
카카오톡 실행하기



step 2-A.  
카카오톡 검색창에  
기독교샵 검색하기



step 2-B.  
QR코드 스캔 후  
QR코드 스캔하기



step 3.  
기독교샵 카카오톡  
채널 추가